

## 1993年度 第3次 理事會 開催

**韓** 國電機工業振興會는 '93. 12. 9(木) 10:30 무역회관 무역클럽 51층에서 재적이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93年度 第3次 理事會를 開催했다. 이날 理事會에서는 '93年度 主要業務 推進現況에

대한 報告가 있었으며 審議案件으로 非常勤 任員의 選任 및 解任(案), 여비지급 규정 개정(안), 아르헨티나 「중전기협회」와의 업무협조 약정서 체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1993年度 工業發展基金 추가 支援

**韓** 國電機工業振興會는 1993年度 工業發展基金 運用管理要領(商工資源部 告示 第 1993-105號, '93. 11. 17)에 의거 '93年度 工業發展基金 추가분 중 電機部門 試製品 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자금

5億원을 工業發展基金運用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대상업체를 선정, 이달말까지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난 上半期에는 20億원의 자금을 모두 11개 업체에 지원토록 한 바 있다.

## 韓電 李宗勳 社長 초청 간담회 開催

**韓** 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9월 17日 무역회관 51층에서 韓國電力公社 李宗勳 社長을 초청, 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 및 단체 대표등 29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韓電에서 우리 重電業界 발전을 위해 '91년도에 660억원의 중전기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93년도에 30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었으며 특히 업계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한전 구매제도 개선은 물론 中小企業 기술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93~'97년까지 총 1,120억원 상당

의 각종 기술지원을 해주는 등 우리 중전업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전 지원사업에 대한 대업체 홍보 및 업계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전업계 대표들은 앞으로도 업계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 1993年度 제5, 6차 公認認證試驗 免除 對象品目 選定

**韓**

國電機工業振興會는 重電機  
器 試驗基準 및 方法에 관

한 要領(商工部 告示 第'92-16號,  
'92. 5. 4)第7條 규정에 의거 4차에

걸쳐 7개 업체에서 신청한 92건의  
公認認證試驗 免除 對象品目を 선  
정한데 이어 지난 9月 23日과 12  
月 3日에는 1993年度 제5, 6차  
“重電機器 品質管理委員會”를 열  
고 금성계전(주)등 11개 업체에서  
신청한 5개 품목 10개 제품 34건  
을 免除對象品目으로 선정했다.

## 〈公認認證試驗 免除 對象品目 現況〉

| 품 목 별 | 제 품 별  | 면제<br>건수 | 면제업체                           |
|-------|--|----------|--------------------------------|
| 변 압 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3KV 이상 22.9KV 이하의 권철심 변압기</li> <li>• 3.3KV이상 154KV 미만의 적철심 변압기</li> </ul> | 4        | 국제전기(주)<br>조일성업전기<br>(주)등 3개업체 |
|       |  | 12       |                                |
| 차 단 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공차단기</li> <li>• 자동구간개폐기</li> </ul>   | 3        | 현대중전기(주)<br>금성계전(주)<br>등 3개업체  |
|       |  | 7        |                                |
| 개 폐 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하개폐스위치</li> <li>• 컷아웃스위치</li> </ul>  | 1        | 일진전기공업(주)<br>중원전기공업(주)         |
|       |  | 1        |                                |
| 휴 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워휴즈</li> <li>• 갭(Gap)형 피뢰기</li> </ul>                                      | 1        | 보성중전기(주)<br>보성중전기<br>(주)등 2개업체 |
|       |  | 2        |                                |
| 피뢰 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갭레스(Gapless)형 피뢰기</li> </ul>  | 2        | 일진전기공업(주)<br>"                 |
|       |  | 1        |                                |
| 계     |  | 34       |                                |

한편, 重電機器 品質管理委員會  
에서는 전류 변성기에 대한 개발  
시험은 다음과 같은 대표규격으로

개발시험을 필한 제품에 한하여  
공인인증시험을 면제토록 하였다.

\* 상기사항은 '94. 4. 1일부터 시  
행하며, 이외의 규격으로 개발시험  
을 받아 공인인증시험면 제를이미  
받은 제품은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개발시험 대상 제품명 | 시 험 방 법   |
|-------------|---|
| 전류 변성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 식(Mold식 포함)<br/>22.9KV 이상 : 권선형 25.8KV 100/5A<br/>22.9KV 미만 : 권선형 7.2KV 300/5A</li> <li>○ 유입식<br/>22.9KV 이상 : 권선형 25.8KV 30/5A<br/>22.9KV 이상 : 권선형 7.2KV 100/5A</li> </ul> |

## 重電機器 生産工場 및 大需要機關 訪問

**韓** 國電機工業振興會는 대·중 소기업간 기술협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경영·품질관리 우수업체의 공장 방문을 통한 회원사의 경영 및 품질관리 향상과 기술정보 습득, 대단위 수요자와의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2박 3일간 重電機器 生産工場과 大需要機關을 방문했다.

商工資源部 관계관, 業界 任·職員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최첨단 시설과 자동화설비를 보유한 日進電機工業(株) 수원공장, 金星電線(株) 구미공장, 現代重電機(株) 울산공장 및 金星產電

(株) 창원공장을 비롯 韓國電力公社 고리원자력 발전소, 重電機器 大需要機關인 浦項綜合製鐵(株) 포항공장을 견학하였다.

이번 방문은 대·중소기업 및 동종업체 기술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 교환 및 정보교류를 함으로써 동업자의식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품질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 절감과 시장개방의 파고속에서 우리 중전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구상해 보는 매우 값지고 뜻있는契機가 되었다.

## 南美 市場開拓團, 3천만\$ 수출 상담

**韓** 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14일간)까지 브라질 등 南美 3개국에 수출시장 개척단을 파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민영화 정책에 의한 시장경제 제도도입과 인플레이 안정에 따른 공업화 진전으로 대규모 발전설비 프로젝트 및 기자재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南美 지역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3개국에 파견된 이번 수출시장 개척단은 本 振興會 任寅柱 상근부회장

을 단장으로 金星產電, 曉星重工業 등 電機業界 大·中小企業 8개사가 참여해 브라질 6백만\$, 아르헨티나 1천 4백만\$, 칠레 1천만\$ 등 상담액 3천만\$, 상담회사 및 상담건수만도 95개사 180여건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이번 南美 방문기간 동안에는 수출상담 이외도 내년 개최되는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94)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아울러 각국의 전력청을 방문하여 그곳 중장기 전원개발 계획을 살펴보고 전력기자재 수급현황 및 입

찰구매 계획을 파악함은 물론 우리 업체의 프로젝트 진출시 협력키로 했으며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중전기협회”를 방문하여 정보자료 교환과 중전업계 인적교류 및 전시회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업무협조 약정서를 체결키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들 지역은 민영화 및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계획에 따라 장기 전원개발을 적극 추진, 향후 중전기기의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聲價가 높아 지속적인 제품홍보와 기술교류 및 입찰활동 강화, 현지 합작투자 등의 장기적인 시장진출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투자를 할 경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이번 시장개척 활동을 계기로 우리 업계의 국제화 및 수출다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수출 가능지역에 대한 시장개척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세미나 현황리 마쳐

GATT 정부조달확장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어 업계 및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韓國電機工業振興會가 9月 15日 오후 2시 한국종합전시장 3층 소회의실에서 120여명의 重電業界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重電산업의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상공자원부 이재훈 다자협상과장은 重電機부분 등 일부 정부구매 비중이 큰 업종은 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인한 파급영향이 여타 업종보다 클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업계의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전력분야는 정부조달협상에서의 핵심분야로 각국의 관심이 매우 높아 금번 GATT / 정부 조달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미국, EC 등 주요국으로부터 양자적인 개방 압력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 분야의 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 金在駿 박사는 우리정부가 '92. 6월에 韓電을 제외한 양허안을 제출했으나 미국 및 캐나다에서 한전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최근 미·EC간 중앙정부, 전력의 물품, 서비스, 건설시장 개방 합의에 따라 한전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重電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개방의 충격도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韓電의 경우 총 조달액 3조원 가운데 개방되는 부분은 2조 3,000억원(하한선 이상 양허액)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시장잠식액도 상당부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정부조달시장 현황과 미국, EC, 일본 등 주요국가의 重電機 분야 정부조달 정책 및 조달제도, 시장별 진출방안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대한무역진흥공사 李鍾建 국제경제과장은 우리의 대응방안으로써 각국의 양허기관 현황 파악 및 입찰정보 입수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과 重電機器가 건설수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 해외 건설업체와의 연계로 重電機器제품의 수요창출과 수출증대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법인 설립에 의한 해외진출과 합작법인 설립 등도 적극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 구매입찰시 구매공고 이외의 낙찰업체 선정 기준이 되는 요건의 충족과 구매기관의 구매별 수요특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의 비강제적인 표준에 대한 지식습득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전업계 대표들은 정부조달 개방에 있어 전력생산 기관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民營회사형태로 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협정가입 국중 韓電과 유사한 기관을 양허한 예는 없다고 주장하고 우리 重電산업은 내수, 관납 위주로 성장한 관계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니 만큼 업계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제도적 대응책 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정부도 GATT 정부조달협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조달 관련 규정을 재정비,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韓電 양허가 불가피하다면 UR협상 결과 새로 개방되는 유통시장, 통신시장, 금융시장 등의 경우 국내 시장보호조치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처럼 韓電 개방의 경우도 우리 업계가 국내업체 보호방안 마련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협정적용 대상이 되는 조달금액의 하한선도 최소한 10억원 이상은 되도록 하한선을 인상하여 협상에 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